

2006 예산 편성을 위한 도민의견 수렴결과

일자리 창출·경제활성화가 최우선

경기도가 수요자 중심의 2006년도 예산편성을 위하여 8월 10일부터 9월 6일까지 사이버 및 지역별 서면설문과 실국별 토론회를 거쳐 총 4,447명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응답자 31.9%가 어려운 경제난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선 투자해야 한다고 답했다.

경기도는 정책의 최종수혜자인 도민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기존의 공급자 위주의 일방적 행정행태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민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도정 7개 분야에 대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현재 작성중인 2006년 예산에 반영중이다.

도민들은 예산편성에 가장 우선을 두어야 할 분야로 지역경제분

야 31.9%, 건설교통분야 15.5%, 보건복지분야 13.9%, 문화관광체육분야 10.2%순으로 응답했다. 또한 분야별로 우선투자해야 할 부문에 대한 최다 응답현황은 ▶지역경제 분야는 100만개의 일자리 창출 16.4% ▶문화관광 체육분야는 관광지 개발 및 정비 37.3% ▶농경 분야는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31.4% ▶보건복지분야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증진 16.3% ▶환경분야는 도시공원 조성 27.9% ▶건설교통분야는 농어촌 낙후 소외지역 생활편의 기반 확충 9.8% ▶가족여성정책분야는 여성의 경제활동 강화를 위한 보육시설 확충 15.6%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경제 분야 의견 수렴에 있어서 경기도가 이 분야에서 가장 성과가 높았다고 평가된 분

야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만들기가 35.4%로 가장 많았으며, 10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23%, 외국 첨단기업 유치가 15.3%로 뒤를 이었다.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는 청년층 일자리 제공 사업이 47.8%가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했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19.5%, 고용촉진 훈련 16.7%로 시급하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이번 설문은 응답자 4,447명중 남성 52.8%, 여성 47.2%의 비율로, 직업별로는 주부 18.1%, 사무직 11.7%, 자영업 8.8%, 농업 7%, 기타 33.7%로 각계 각층의 고른 참여에 이루어졌으며, 1개월 미만의 짧은 일정에라도 권역별 조사, 인터넷 및 서면 조사, 토론회를 통해 최대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의견이 수렴되도록 노력했다.

경기도 담당자는 “경기도의 경우 2004년부터 선거회 후예산 시스템을 도입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도민의견을 반영해 왔다”며 “올해의 경우 기일이 촉박하고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채택만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다방면에 걸쳐 전년도 1600여명의 의견보다 178% 많은 4,447명의 귀한 의견을 청취하여 도정에 반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된 도민의견 수렴 결과는 9월 초 각 국별 예산심의 후, 11월 초에 확정되어 경기도의 회에 제출하게 될 2006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문화관광부장관상 박수진 氏 수상영예

제7회 회룡한국무용제 전국대회 90여개팀 참가



(사)한국무용협회 의정부지부가 주최해 마련한 제7회 회룡한국무용제 전국대회(대회장 이미숙)가 지난 25일 일요일 오전9시부터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개최됐다.



(사)한국무용협회 의정부지부가 주최해 마련한 제7회 회룡한국무용제 전국대회(대회장 이미숙)가 지난 25일 일요일 오전9시부터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개최됐다.

의전당 대극장에서 개최된 이 대회 최고상인 문화관광부장관상을 박수진(사진)씨가 수상하는 등 70여명의 무용인재를 배출했다.

무용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해마다 마련되는 회룡한국무용제 전국대회는 심사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그 특징으로 하며 지도자상과 특별상을 시상하는데 의미가 있다.

특별상의 경우 본지가 협찬해 마련된 상으로 최우수상 수상 학생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 50만원을 시상함으로써 용기를 주고 있기도 하다.

전국에서 참가한 무용인재 발굴의 장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 회룡한국무용제 전국대회 제7회 대회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일반부 및 대학부 ▶대상 박수진(성남시) ▶최우수상 박성민(장려상 김진경(고양시) 안선희(남양주시)▶고등부 한국무용 ▶최우수상 이하나(용호고 1년) ▶우수상 박유진(서울국악고 2년) 박라희(홍진고 3년) ▶장려상 김진주(충북예술고1년) 고경선(의정부여고1년) 이금연(군포정보고1년) 한

보라(인천예술고 1년) 소선아(부천북고 3년)▶고등부 외국무용 ▶최우수상 박지연(부천북고2년) ▶우수상 박주예(중흥고3년) 김수연(부천북고 2년) ▶장려상 원주연(부천북고 1년) 김빛나(덕성여고 3년) 김현주(현대고 3년) 송신혜(부천북고 3년)신슬기(부천 중흥고 1년)▶중등부 한국무용 ▶최우수상 김보경(부천북여중 1년) ▶우수상 권덕학급 50만원을 시상함으로써 용기를 주고 있기도 하다.

전국에서 참가한 무용인재 발굴의 장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 회룡한국무용제 전국대회 제7회 대회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일반부 및 대학부 ▶대상 박수진(성남시) ▶최우수상 박성민(장려상 김진경(고양시) 안선희(남양주시)▶고등부 한국무용 ▶최우수상 이하나(용호고 1년) ▶우수상 박유진(서울국악고 2년) 박라희(홍진고 3년) ▶장려상 김진주(충북예술고1년) 고경선(의정부여고1년) 이금연(군포정보고1년) 한

15개동 1천500여명 참여한 ‘주민 잔치’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 및 발표회



의정부시에서는 22일부터 23일까지 의정부예술의 전당에서 15개 동 1천500여명이 참여하는 제1회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 및 발표회를 개최했다.

의정부시에서는 22일부터 23일까지 의정부예술의 전당에서 15개 동 1천500여명이 참여하는 제1회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 및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작품전시 및 발표회는 2000년 동 기능 전환이후 주민자치센터에서 수강생들이 배운 것을 시민들에게 전시 및 발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시민에게는 주민자치센터의 참여의 폭을 넓히고 수강생에게는 자긍심을 고취시켜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열리는 자리이다.

개최 첫날인 22일은 풍물놀이패의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과 더불어

어 호원1동 및 녹양동 주민자치센터의 시범공연과 함께 대강당·소강당 로비에서의 작품전시와 각 동 부스별 체험활동이 행사기간 중 진행되며, 23일 13시부터 17시까지는 예술의 전당 야외무대에서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출품한 21개 작품에 대한 발표회를 가졌다.

22일에 전시되는 작품은 15개동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이 직접 만든 208점의 작품이 예술의 전당 대강당 및 소강당 로비에서 전시되고, 예술의 전당 야외에서는 각 동 주민자치센터 부스별로 체험활동이 진행됐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접경지역 투자사업비 매년증가

2006년 266억원 규모 예상

경기도(제2청사)의 북부지역 7개 시·군 46개 읍면동 접경지역에 대한 투자사업비가 내년에도 늘어날 전망이다.

그동안 접경지역 예산은 2003년에는 117억원, 2004년에는 175억원, 2005년에는 235억원 등 지난 3년간 총 527억원이 투자되었으며, 2006년에도 금년보다 약13% 늘어난 266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내년도 정부예산안 중 접경지역 지원예산이 원안대로 확정될 경우 4년 연속 증가추세를 이어가게 된다.

이처럼 접경지역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남북분단의 특수한 여건과 군사시설보호를 위한 개발제한 등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불만을 해소시켜 나간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3년간 접경지역에 투자된 지원사업비는 최북단 지역인 연천군에 150억원, 파주시 115억원이 집중적으로 투자되었으며, 포천시 74억원, 김포시 58억원, 양주시 54억원, 동두천 52억원, 고양시 23억원이 각각 지원됐다.

접경지역지원사업은 그동안 소외되어왔던 접경지역 주민들의 소득향상 및 생활환경개선 등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회룡역 앞 방호벽 철거

의정부시의 관문인 국도3호선 회룡역 앞에 위치한 방호벽이 금년 안에 철거 될 전망이다.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했던 회룡역 방호벽이 철거됨으로써 회룡역을 이용하는 3만여 시민들의 통행불편 해소는 물론 1일 차량이 7만대가량 통과하고 있는 국도 3호선의 차량흐름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부시는 대전차 방호벽으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국방부, 관할군부대 등과 협의하여 금년 전향적인 협의 결과를 도출하게 됐다.

의정부시는 방호벽 철거를 최대한 앞당겨 추진하기로 하고 군 측과 최종 협의 중에 있다.

또한 나머지 5개소는 현재로서는 가급적 그대로 유지하나 장기적 관점에서 철거가 필요시 대전차구 대체를 전제로 관할 부대와 별도 협의하여 시행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계획이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성년맞는 회룡문화제 다채롭게 펼쳐져

다음달 3일부터 8일까지 시내 일원에서



올해 성년을 맞는 의정부시 대표적인 축제 회룡문화제가 다음달 3일 경기도 제2청사 앞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8일까지 다채롭게 펼쳐진다. 사진은 지난해 개최된 제19회 회룡문화제 행사 모습.

올해 성년을 맞는 의정부시 대표 축제 회룡문화제가 다음달 3일 경기도 제2청사 앞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8일까지 다채롭게 펼쳐진다.

이번 축제는 그 동안 시청을 중

식과 더불어 SBS팝스 오케스트라와 함께 인순이씨 등 인기가수들이 참여하는 축하공연이 펼쳐지며, 4일부터 8일까지 가능한 어수정공원을 비롯한 잠양동 동막교아래, 용현초등학교, 중앙로 등에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장기지랑과 함께 공연이 펼쳐지게 된다.

또한 의정부예술의전당 전시장에서는 축제기간 동안 우표전시회, 다종이인형, 서예, 문인화, 목공예 등 다양한 작품이 선보이게 되며,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왕실행차체험은 8일 오후 경의초등학교에서 출발, 시내 중심가를 지나 야외무대에 도착하면 시민의 날 전야제가 성대하게 열리게 된다.

이번 축제를 마련한 의정부시정관계자는 “그 동안 서쪽지역에 편중돼 실시했던 축제를 동쪽에서 실시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주민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주민들의 참여를 이끄는 쪽으로 마련돼 매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고객안전 · 고객만족 · 고객사랑을 지향하는 ‘금마 고속 관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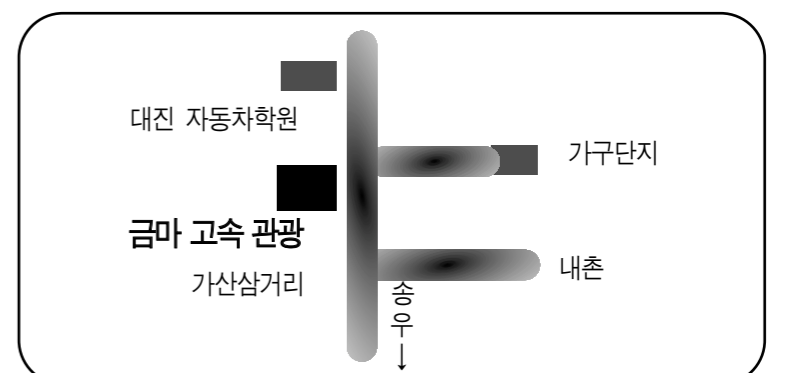
고객님들의 아낌없는 사랑과 격려로 성장해온 ‘금마고속관광’은 언제나 친절과 안전운행을 약속합니다.



◇ 최신형 전세버스 완비 ◇

25인승, 35인승, 45인승

- 효도관광
- 수학여행
- 신혼여행
- 문화재답사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유교리 1043-1

예약문의 : 031) 544-8888

대표이사 : 이복용